

실내 소품의 분류와 주거공간에서의 적용 경향

The Classification and Application Tendency of Interior Accessories in Korean Residential Spaces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주거학과

석사 최정운*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오혜경**

Department of Housing,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Choi, Jung-Woon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Oh, Hye-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pplication tendency of interior accessories in Korean residential spaces. The main resources were selected documents and articles with pictures published 27 years, from 1976 to 2002, in *Modern House*, which is the first magazine for the residential space in Korea.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 1) Interior accessories were investigated more for functional reasons than decorative reasons. Despite the belief that interior accessories are primarily for decoration purposes, this study proves that the functional elements are more important as part of the Korean interior.
- 2) The kind and the amount of interior accessories applied in residential space were decreasing in most accessories as well as in master bedroom, and living rooms from 1994 to 2002.
- 3) The number of application to Korean traditional accessories in residential space decreases as time goes by. Although they were used as functional accessories as the role of antiques in present.

▲주요어(Key Words) : 실내소품(interior accessories), 주거공간(residential spaces)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실내공간은 기본적으로 벽, 바닥, 천장과 가구로 구성되지만,

이들만으로 공간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거 공간에서의 실내는 하나의 공간적 성격을 가져야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성격을 완성 지워주는 최종적 단계가 실내 소품이다. 즉, 실내 소품은 건축물과 가구를 보완하고 바닥, 벽, 천장을 자연스럽게 이어 실내에 활력과 즐거움을 부여하며 리듬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전체공간의 시각적인 초점을 형성하거나 부수적인 악센트가 되기도 하며 공간에 예술적 세련미를 주어 미적으로 승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 주 저 자 : 최정운 (E-mail : woony323@hanmail.net)

** 교신저자 : 오혜경 (E-mail : ohk@khu.ac.kr)

따라서 실내 소품의 적절한 선정은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 주어 안락함과 쾌적함을 주는 한편, 개개인의 개성이나 감각 등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소품의 역할이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주거 공간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구조 변경이나 경제적 지출이 많은 인테리어 공사는 줄어 들어가고, 직물이나 소품을 이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나 표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인테리어 소품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관한 연구는 직물이나 섬유디자인 전공자들의 직물에 국한시킨 인테리어 소품에 관한 연구들 또는 도자를 이용한 소품들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실내 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소품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연구로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실내 소품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실내 공간, 특히 주거 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소품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 소품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 실내 소품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소품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대의 주거공간에서 쓰이고 있는 실내 소품의 적용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여러 학자들의 실내 소품에 관한 문헌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실내 소품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제시된 실내 소품의 정의와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현대 주거공간과 전통 주거공간에서 사용되어졌던 실내 소품을 분류한다.

셋째, 위의 두 분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거공간의 실내 소품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경향을 분석한다.

II.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2가지의 문헌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 분석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실내 소품의 정의 및 분류는 인테리어 소품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 16권¹⁾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 1) 김대년·최정신(2000) 실내디자인의 이해, 교문사, 170p.
 김상권(2001), 인테리어디자인, 미진사, 283p.
 김성호(1995), 인테리어 디자인의 공간과 요소, 신기술, 13p.
 김중근(1994), 실내디자인총론, 기문당, 349p.
 박영순·오혜경(1993), 인테리어 디자인, 다섯수레, 188p.
 박홍(1988), 주택의 인테리어, 기문당, 307p.

그리고 주거공간 내 실내 소품의 적용 경향은 한국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주거공간의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는 잡지인 현대주택의 내용 및 사진을 정리, 분석하였다. 현대주택은 1975년에 창간되었으나 1975년에는 주거공간의 적절한 사례가 없어 제외하고 1976년부터 2002년간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공간은 공간내 거주자의 생활시간이 주로 소비되는 공간인 안방 및 부부침실, 그리고 거실이었으며, 이를 선정함에 있어 같은 공간의 사진이 2컷 이상 있는 공간으로 한정하였으며, 따라서 안방 및 부부침실이 237공간, 거실이 286공간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의 공간별·연도별 사례 수

년 도	안방 및 부부침실	거 실
1976 ~ 1984	39	86
1985 ~ 1993	96	99
1994 ~ 2002	102	101
합 계	237	286

2. 분석방법 및 절차

분석 방법은 우선 공간별로 조사된 각 실내 소품들 중에서 문헌 16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시된 실내 소품의 정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품만을 선정하였고 이를 크게 실용성이 강한 소품과 장식성이 강한 소품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실내 소품을 조사된 1976~2002년까지 27년의 기간을 3단계의 연대별로 나누어 실용성이 강한 소품과 장식성이 강한 소품, 그리고 각 소품의 적용 경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의 연대별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5년 단위의 6단계로 나누어 예비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적용 경향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분석자는 연구자와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인 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전공 교수 1인의 검토가 있었다.

안옥희(1993), 실내디자인, 미진사, 158p.

오인옥(2002), 실내디자인학, 지문당, 331p.

조성렬(1988), 室內建築:인테리어디자인의 실제, 한림출판사, 117p.

최성수(1994), 실내디자인론, 동방디자인, 58p.

한국실내디자인학회(1997), 실내디자인각론, 기문당, 63p.

한국의장기사협의회(1994), 실내디자인총해, 서우문화사, 52p.

John F. Pile(1997), Interior Design, 국제, 391p.

Arnold Friedman 외 2(1984), Interior Design -A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Interiors, 3rd Edition, Elsevier, 306p.

Don Hepler 외 2(1983), Interior Desing Fundamentals, Gregg Division & McGraw-Hill Book Company, 287p.

Sarah Faulkner(1988), Planing a Home, Holt Rinehart & Winston, 334p.

III. 실내 소품의 정의 및 분류

1. 실내 소품의 정의

'소품' 혹은 'accessory'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조그만 물건(小品), 혹은 부속물, 부속품, 부대물 또는 장신구'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서는 실내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부대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물품들이 있다. 이들을 일반적으로 실내 소품이라 한다. 이러한 실내 소품은 공간 내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문헌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 내려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실내 소품의 분류에 따른 학자마다의 용어정의에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2> 여러 학자들의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정의

개념요소 학자	장식성	실용성	크기	이동성
박홍			비교적 작은 것	움직이기 쉬운 것
조성렬				
박영순·오혜경	미적조화를 얻기 위한 것			
안옥희			비교적 작은 것	움직이기 쉬운 것
김중근·오인옥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는 장식적인 것		비교적 작은 것	움직이기 쉬운 것
최성수	시각적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			움직이기 쉽고 전시·진열이 용이한 것
김성호	미적 높이나 장식을 가져오게 하는 것			
김대년·최정신	미적 효용성을 더하는 것	기능을 더하는 것		
김상권	장식, 혹은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가구보다 작은 것	이동이 가능하고 자주 교체가 가능한 것
의장기사협의회	장식성이 강한 것		작은 것	움직임이 쉬운 것
한국실내 디자인학회	보다 풍부한 장식적 역할을 하는 것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들		
Hepler·Jensen·Wallach	순수하게 장식적인 것	기능적일 수 있는 것		
Friedman·Wilson			작은 물건	옮길 수 있는 것
Faulkner				
Pile	장식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장식, 전시를 혼합한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가구보다 작은 것	이동이 가능하고 자주 교체가 가능한 것

박홍(1988)은 실내 소품은 실내디자인을 완성시키는 모든 종류의 비교적 작고 움직이기 쉬운 오브제로, 조성렬(1988)은 실내디자인의 계획으로 꼭 그곳에 있었으면 하는 물건을 가리키며, 박영순·오혜경(1993)은 전체적인 미적 조화를 얻기 위해 실내에 배치하는 사물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안옥희(1998)는 실내를 완성시키는 모든 종류의 비교적 작고 움직이기 쉬운 것을, 김중근(1994)과 오인옥(2002)은 기능적인 측면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장식적인 것으로, 비교적 작고 움직이기 쉬워 실내디자인을 완성하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최성수(1994)는 움직이기 쉽고 진열, 전시하기 용이한 모든 것을, 김성호(1995)는 공간에 미적인 높이나 장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고, 김대년·최정신(2001)은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기능을 더해 주거나 미적 효용성을 더해 주는 물품이라 정의하였다. 김상권(2001)은 규모면에서는 가구보다 작고, 기본적 가구나 설비들 위에 덧붙여질 수 있는 장식 혹은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자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 의장기사협의회(1994)는 실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장식성이 강하고 작고 움직이기 쉬운 물품이라 정의하였고, 한국 실내디자인학회(1997)에서는 가구 등의 주체적인 요소 외에 생활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통신, 정보, 설비의 기능적인 요소들이나, 보다 풍부한 장식적 역할을 하는 것이 실내 소품이라 하였다.

Hepler·Jensen·Wallach(1983)은 그림, 화초처럼 순수하게 장식적이거나 쿠션, 초, 거울, 책처럼 기능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실내 디자인을 완성시키기 위한 실내의 구성 요소라 정의하였다. Friedman·Wilson(1984)는 실내를 완성시키는, 옮길 수 있는 작은 물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Faulkner(1988)는 부수적인 비품으로, 완전하게 갖추게 해주는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Pile(1997)은 가구보다 작고, 장식이나 전시, 혹은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공간에 도입되는 사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자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각 학자들의 실내 소품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실용성²⁾과 장식성, 그리고 그 크기와 이동의 용이성, 이렇게 4가지의 요소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4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표 2>와 같고 여기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실내 소품을 정의 내릴 수 있다.

'실내 소품이란, 실내디자인에서 마지막으로 그 공간을 완성시키면서 실용적으로 사용되거나 장식적인, 혹은 둘 다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가구보다 작고 이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구보다 작은 크기는 매우 불확실한 의미로 그 크기의 기준을 제시한 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실제 가구는 대규모의 옷장부터 소규모의 탁자까지 그 범위가 매우 크며 이를

2) 본 연구에서는 '실리성', '기능성'은 '실용성'과 같은 정의의 용어로 간주한다.

움길 수 있는 이동성과 관련하여 보면 가구 중에서도 소규모의 탁자들은 그 크기가 작고 이동이 용이하므로 소품으로 분류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동이 용이하다라도 가구로 분류되어지는 것은 제외하였다.

2. 실내 소품의 분류

1) 현대 주거공간의 실내 소품 분류

실내 소품에 대한 개념이 각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내 소품 또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우선, 박홍, 안옥희, 김중근, 김성호, 김대년·최정신, 김상권, 오인욱, 조성렬, 의장기사협의회, Pile, Faulkner 등은 실내 소품을 실용적인(functional) 실내 소품과 장식적인(unfunctional) 실내 소품³⁾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용적인 소품은,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발휘하면서 부수적으로 장식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김중근, 김상권, 김대년·최정신, 오인욱, 의장기사협의회, Pile)으로, 앞의 학자들이 실용적인 실내 소품으로 제시한 것들을 모아 정리하고 각 소품들을 실내 소품의 정의에 대입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실용적인 실내 소품

종 류		장식성	실용성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
식사용 가구	차이나, 실버웨어, 유리그릇	○	○	○	○
	식탁보 등의 린넨류	○	○	○	○
	부수적인 장식물	○	○	○	○
침실· 욕실 소품	시트, 베갯잇, 침대덮개 등	○	○	○	○
	타월, 샤워커튼, 매트	○	○	○	○
	기타 다른 소품	○	○	○	○
가전 제품· 조명 기기	시계, 라디오, 오디오	○	○	○	○
	TV, 비디오	○	○	○	○
	이동 용이한 스탠드	○	○	○	○
	이동 용이한 천장조명	○	○	○	○
그 외	스크린, 병풍, 거울	○	○	○	○
	옷걸이, 우산꽂이, 휴지통 꽃꽂이용구, 담배세트	○	○	○	○

이와 같이 정리하여 본 결과, 실내 소품의 개념 요소인, 장식성, 실용성,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에서 모든 실용적인 실내 소품은 실용성 뿐 아니라 장식성까지도 충족시키는

3) 본 연구에서는 비기능적인(unfunctional) 인테리어 소품을 장식적인(decorative) 인테리어 소품과 같은 정의의 용어라 간주한다.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네 요소를 모두 겸비하고 있었다.

장식적인 소품은 일차적으로 장식적 역할이 우세한 물품들(김중근, 김상권, 김대년·최정신, 박홍, 오인욱, 조성렬, 의장기사협의회, Pile)을 말하며, 이러한 물품들은 장식적인 역할 이외에 어느 정도의 유용성⁴⁾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장식적인 소품으로 식물류와 예술품, 두 분류로 나누고 있으나 장식적 분류에 기념물적 소품을 추가하기도 하였다(박홍, 의장기사협의회).

또한 장식적인 소품의 분류에 부수적 실내 소품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데(김성호) 여기에서 부수적 실내 소품은 다른 기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공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그 예로 실내 가구류의 형태, 색깔, 텍스처어, 혹은 재료의 접합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 실내 소품은 소품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품을 구성하는 부수적인 요소의 기능만을 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키고자 하며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장식적인 실내 소품

종 류		장식성	실용성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
예술품	회화, 판화, 사진, 포스터	○		○	○
	조각품, 골동품, 공예품, 도자기	○		○	○
	예술적 직물, 고가구	○		○	○
식물류	식물, 생화	○		○	○
	건화, 조화	○		○	○
기념품	트로피, 상패, 메달	○		○	○
	탁본, 각종 박제류	○		○	○
그 외	모형(인형, 동물, 비행기, 자동차등의 각종 모형)	○		○	○
	수석, 동물(금붕어, 조류)	○		○	○
	감상용 완구류	○		○	○

이와 같이 정리하여 본 결과 장식적인 실내 소품은 장식성, 실용성,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에서 실용성은 찾기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실내 소품 분류

한국 전통 주거 공간에서 사용되어 왔던 실내 소품들은 현대의 주거공간에서도 꾸준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 주거 공간에서 실내 소품들은 공간별로 사용되거나 배치되었던 가구들과 함께 '전통가구'로 분류되어 왔다⁵⁾. 따라서 전통 주거

4) 공간의 용도나 특성, 실내디자인 양식 표현 등

5) 박영순 외 7(1999),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07~156p.

최상수(1988), 한국의 의식주와 민구의 연구, 성문각, 81~162p.

공간에서 사용되어졌던 가구들을 실내 소품의 정의에 대입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소품을 분류해 낼 수 있다.

(1) 안방

안방에서 사용되었던 전통가구 및 기물의 종류를 정리하여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5> 안방에 배치·사용되었던 전통가구와 기물

종류	장식성	실용성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
장, 농, 반닫이	○	○		
각계수리, 문갑, 궤	○	○		
좌경, 빗집	○	○		
족두리함, 보석함, 폐물궤	○	○	○	○
채상, 유상, 반진고리	○	○	○	○
화로, 인두, 인두판	○	○	○	○
보료, 안석, 사방침, 방석	○	○	○	○
고비, 병풍, 발, 휘장, 햇대	○	○	○	○
솟대, 등경, 등의 조명기구	○		○	○

이 중에서 장, 농, 반닫이, 각계수리, 문갑, 궤는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에서 볼 때 소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사물을 안방에서 사용되었던 소품이라 볼 수 있다.

(2) 사랑방

사랑방에서는 문방가구와 기물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를 정리하여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사랑방에 배치·사용되었던 전통가구와 기물

종류	장식성	실용성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
장, 책장, 문갑, 서안, 궤	○	○		
평상		○		
도장함, 문서함, 관복함, 관모함	○	○	○	○
연상, 고비, 서견대	○	○	○	○
필통 및 필가, 각종 문방구	○	○	○	○
죽부인, 궤상, 퇴침	○	○	○	○
병풍, 보료, 안석, 사방침, 장침, 방석	○	○	○	○
발, 족자, 향연, 장죽꽃이	○	○	○	○
바둑판, 장기판, 담배관련도구	○	○	○	○
거문고, 통소 등 악기	○	○	○	○
솟대, 등경 등의 조명기구	○	○	○	○

윤복자(2000), Korean Furniture and Culture, 신광출판사, 25~72p.

배만실(1978), 이조목공가구의 미, 보성문화사.

이 중에서 장, 책장, 문갑, 서안, 궤, 평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인테리어 소품에 속한다 할 수 있고, 이들은 대부분 독서, 사색, 접객, 휴식, 예술 등의 행위를 위한 것이었다.

(3) 주방

주방에는 주방용 수납가구와 주방기물이 있었고 이를 정리하여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주방에 배치·사용되었던 전통가구와 기물

종류	장식성	실용성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
찬장, 찬탁, 뒤주	○	○		
소반, 곡갑	○	○	○	○
철류 ; 숟, 풍로, 철, 식칼, 부엌가락, 삼발이, 다리쇠	○	○	○	○
놋쇠류; 바리, 주발, 함, 조반기, 쟁침, 밥소래, 병거짓골, 신선로, 쟁반, 반병두리, 양푼, 자복	○	○	○	○
기타급속 ; 주걱, 국자, 석자, 석쇠, 쟁개비, 주전자, 장판, 깔때기	○	○	○	○
항아리류; 항아리, 단지, 독, 동이, 대독, 소래기, 자배기, 버치, 독배기, 방구리, 쪼대병, 시루	○	○	○	○
목기류; 함지박, 목판, 키, 체, 열개미, 채반, 다식판, 떡쌀, 용수, 이남박, 조리, 광우리 고리, 절구, 찬함, 표주박	○	○	○	○
기명류 ; 밥사발, 탕기, 대접, 보시기, 종지, 푼주, 음파리	○	○	○	○

이와 같이 주방에서 사용, 배치되었던 전통가구와 기물들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수납의 기능이 강한 찬장, 찬탁, 뒤주는 그 크기가 크고 무게가 있어, 가구보다 작은 크기와 이동의 용이성으로 볼 때 소품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 주방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기물들은 실내 소품의 특성에 적합하므로, 소품이라 말할 수 있다.

3. 주거공간에서 실내 소품의 적용경향

1) 안방·부부침실

조사대상 잠지인 현대주택에서 안방·부부침실은 총 237공간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공간에 실내 소품의 종류와 개수의 평균을 조사하여 보았더니 <표 8>과 같았다

<표 8> 안방·부부침실의 연대별 소품 종류와 개수의 한 공간 당 평균⁶⁾

종류와 개수		1976 ~ 1984	1985 ~ 1993	1994 ~ 2002
실용성이 강한 소품	종류	4.8	4.8	4.3
	개수	6.7	6.4	5.8
장식성이 강한 소품	종류	2.4	2.4	1.4
	개수	4.4	4.5	2.5
전체 소품	종류	7.2	7.2	5.8
	개수	11.1	10.9	8.3

이를 보면, 전체 실내 소품의 종류와 개수에서 1976~1984년과 1985~1993년의 18년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1994년 이후부터 최근 9년 동안 실용성이 강한 소품에 비해 장식성이 강한 소품은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에 올수록 실내에 많은 소품을 배치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장식성이 강한 소품을 더욱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실용성이 강한 소품들이 한 개도 적용이 되지 않은 공간이 전체 237사례 중 3사례에 불과한 것에 비해, 장식성이 강한 소품들이 적용되지 않은 공간은 전체 사례에서 35사례나 발견되었으며 그 중 60%에 달하는 21사례가 1994~2002년 사이에 발견된 점에서도 추측해 볼 수가 있었다.

또한 안방·부부침실에서 파악된 실내 소품의 종류를 보면, <표 9>와 같으며, 실용성이 강한 소품 38종류, 장식성이 강한 소품 9종류가 나타났다.

<표 9> 안방·부부침실의 연대별 실내 소품 적용 공간수와 백분율⁸⁾

종 류	연대별 적용된 공간수 (연대별 백분율)			합계 (전체공간에 대한 백분율)	
	1976~1984	1985~1993	1994~2002		
린넨류	쿠션	8 (20.5)	16 (16.7)	47 (46.1)	71 (30.3)
	베개	6 (15.4)	13 (13.5)	51 (50.5)	70 (29.5)
	침대보	16 (41.0)	40 (41.7)	76 (74.5)	132 (55.7)
	테이블보	1 (2.5)	10 (10.4)	3 (2.9)	14 (5.9)
	매트·러그	1 (2.5)	4 (4.1)	12 (11.7)	17 (7.2)
	의자덮개		3 (3.1)	3 (2.9)	6 (2.5)
	이불·담요	2 (5.1)			2 (0.8)
	뒹자리	1 (2.5)	6 (6.2)	1 (0.9)	8 (3.3)
	보료	5 (12.8)	9 (9.3)	7 (6.8)	21 (8.8)
	방석	7 (17.9)	20 (20.8)	11 (10.7)	38 (16.0)
	사방침	1 (2.5)	3 (3.1)	3 (2.9)	7 (2.9)
	장침	3 (7.6)	5 (5.2)	7 (6.8)	15 (6.3)
	안석		3 (3.1)	4 (3.9)	7 (2.9)
	가전 제품· 조명 기구류	가습기	1 (2.5)	3 (3.1)	1 (0.9)
시계		9 (23.1)	38 (39.6)	38 (37.3)	90 (38.0)
오디오세트		5 (12.8)	8 (8.3)	9 (8.8)	22 (9.2)
전화기		16 (41.0)	40 (41.7)	36 (35.3)	92 (38.8)
강한 소품	TV	10 (25.6)	29 (30.2)	15 (14.7)	54 (22.8)
	스탠드	20 (51.3)	46 (47.9)	57 (55.9)	123 (51.9)
	거울	7 (17.9)	6 (6.2)	1 (0.9)	14 (5.9)
	달력	4 (10.2)	7 (7.2)	6 (5.8)	17 (7.1)
	각종 랙 rack ¹⁾	1 (2.5)	5 (5.2)	4 (3.9)	10 (4.2)
	메모꽂이	2 (5.1)	1 (1.0)	2 (1.9)	5 (2.1)
	옷걸이			2 (1.9)	2 (0.8)
	재떨이· 담배세트	5 (12.8)	10 (10.4)	4 (3.9)	19 (8.0)
	필통	1 (2.5)	5 (5.2)	1 (0.9)	7 (2.9)
	쓰레기통	4 (10.2)	7 (7.2)	1 (0.9)	12 (5.0)
	휴지곽	4 (10.2)	15 (15.6)	5 (5.8)	24 (10.0)
	바구니	1 (2.5)	5 (5.2)	2 (1.9)	8 (3.3)
	병풍	6 (15.3)	9 (9.3)	2 (1.9)	17 (7.1)
	발	1 (2.5)	2 (2.0)	2 (1.9)	5 (2.1)
	소반	4 (10.2)	13 (13.5)	6 (5.8)	23 (9.7)
	각종 합	4 (10.2)	11 (11.4)	6 (5.8)	21 (8.8)
	목판	2 (5.1)	4 (4.1)		6 (2.5)
축대	2 (5.1)			2 (0.8)	
반질고리	1 (2.5)	2 (2.0)		3 (1.2)	
기타 ¹⁾		7 (7.2)	2 (1.9)	9 (3.7)	
장식성이 강한 소품	식물				
	화분	12 (30.8)	26 (27.1)	20 (19.6)	58 (24.5)
	화기	6 (15.4)	10 (10.4)	20 (19.6)	36 (15.2)
	예				
	액자	19 (48.7)	52 (54.1)	58 (56.9)	129 (54.4)
	조각	6 (15.4)	26 (27.1)	8 (7.8)	40 (16.9)
	도자기	16 (41.0)	38 (39.6)	14 (13.7)	68 (28.7)
	그				
	노리개	1 (2.5)	7 (7.2)	1 (0.9)	9 (3.7)
	수석	2 (5.1)	3 (3.1)	1 (0.9)	6 (2.5)
인형	3 (7.6)	11 (11.4)	3 (2.9)	17 (7.1)	
기념상패	1 (2.5)	3 (3.1)		4 (1.6)	
기타 ¹⁾	12 (30.7)	35 (36.4)	24 (23.5)	71 (29.8)	

6) 종류의 평균 ; 연대별 안방·부부침실에 나타난 실용성(장식성)이 강한 인테리어 소품 종류의 합 ÷ 각 연대별 조사 공간 수(표 2-1참조)

개수의 평균 ; 연대별 안방·부부침실에 나타난 실용성(장식성)이 강한 인테리어 소품 개수의 합 ÷ 각 연대별 조사 공간 수(표 2-1참조)

여기에서 연대별 소품의 종류와 개수의 한 공간 당 평균을 나타낸 것은 각 연대별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된 종류나 개수만 보아서는 그 적용 경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7) 각 종류의 소품이 1개라도 적용된 공간의 수

8) 적용된 공간의 수 ÷ 연대별 사례수(표2-1 참조) × 100

여기에서 연대별 적용공간의 백분율을 나타낸 것은, 각 연대별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표2-1 참조), 공간의 수만 보아서는 그 적용경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실용성이 강한 소품 중 린넨류를 보면, 안방·부부침실은 취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와 관련된 침구 종류들(침대보, 베개, 쿠션, 이불담요, 보료, 사방침, 장침, 안석 등)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서양침구류(침대보, 베개, 쿠션, 매트, 러그 등)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한국 전통 침구류(보료, 방석, 사방침, 장침 등)의 사용은 줄어들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는 안방·부부침실이 최근에 올수록 한국 전통적 스타일에서 침대를 중심으로 한 서양스타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가전제품과 조명 기구류에서는 스탠드가 단연 많았고 그다음 이 전화기, 시계였으며 TV도 상당히 적용되고 있었다. 그 외 실용성이 강한 소품들을 살펴보면 휴지곽, 소반, 각종 함, 재떨이·담배세트, 병풍 등의 순이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한국전통 소품들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전통 소품으로는 바구니, 발, 목판, 축대 등 많은 종류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전통 소품들은 최근에 들어 대폭 감소하고 있었고, 각종 함, 소반, 등경, 목판, 축대 등은 과거에 비해 실용적으로 사용 되었다기보다 장식적으로 사용됨으로서 그 용도가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장식성이 강한 실내 소품을 보면 식물류에서 화분과 화기가, 예술품에서는 액자가 단연 많고 도자기, 조각 등이 그 다음으로 장식적인 결과였으나 전통한복의 장식을 위한 노리개가 옷장의 손잡이나 벽면을 장식하는 등 소품의 용도를 바꾸는 다양한 활용이 시도되고 있었다.

2) 거실

조사대상 잡지인 현대주택에서 거실은 총 286공간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공간에 사용된 실내 소품의 종류와 개수를 조사하였다. <표 10>과 같았다.

<표 10> 거실의 연대별 소품 종류와 개수의 한 공간 당 평균

		1976 ~ 1984	1985 ~ 1993	1994 ~ 2002
실용성이 강한 소품	종류	3.7	5.3	4.0
	개수	17.8	13.3	7.8
장식성이 강한 소품	종류	3.6	4.4	3.3
	개수	8.4	13.3	8.5
전체 소품	종류	7.3	9.7	7.3
	개수	26.2	26.6	16.3

이를 보면, 거실은 안방·부부침실과는 달리 장식성이 강한 소품이 실용성이 강한 소품과 비교해 종류나 개수(1976~1984년, 개수의 평균을 제외하고는)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거실이 항상 외부인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강한 소품만큼 장식성이 강한 소품도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적용된 수도 많아진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거실에는 안방·부부침실에 비해 사용된 실내 소품의 개수가 많았는데 이는 사용되었던 가구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1994~2002년에 비해 1976~1993년에 우리나라 거실에서는 칸막이가 많은 붙박이 거실장이나 장식장 등이 많이 사용된⁹⁾ 반면, 최근에는 이러한 장들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경향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거실에서 파악된 실내 소품의 종류를 보면, <표 11>과 같으며 거실에서는 실용성이 강한 소품 23가지, 장식성이 강한 소품 14가지가 나타났다. ¹⁰⁾¹¹⁾

<표 11> 거실의 연대별 실내 소품 적용 공간수¹⁰⁾와 백분율¹¹⁾

종 류	연대별 적용된 공간수 (연대별 백분율)			합계 (전체공간에 대한 백분율)	
	1975~1984	1985~1994	1995~2002		
린넨류	쿠션	29 (33.7)	60 (60.6)	61 (60.4)	150 (52.4)
	테이블보	15 (17.4)	19 (19.1)	12 (11.9)	46 (16.1)
	의자덮개	17 (19.8)	22 (22.2)	6 (5.9)	45 (15.7)
	방석	15 (17.4)	32 (32.3)	3 (2.9)	50 (17.5)
	매트	12 (13.9)	10 (10.1)	5 (4.9)	27 (9.4)
가전제품 조명기구류	시계	25 (64.1)	52 (54.2)	46 (45.1)	123 (51.9)
	오디오세트	12 (14.0)	38 (38.4)	44 (44.7)	94 (32.9)
	전화기	22 (25.6)	52 (52.5)	40 (39.6)	114 (39.9)
	TV	24 (27.9)	55 (55.6)	75 (74.6)	154 (53.8)
	스탠드	23 (26.7)	24 (25.0)	31 (30.7)	78 (27.3)
실용성이 강한 소품	필통	5 (5.8)	5 (5.0)	5 (4.9)	15 (5.2)
	쓰레기통	4 (4.6)	9 (9.0)	1 (0.9)	14 (4.8)
	휴지곽		12 (12.1)	4 (3.9)	16 (5.5)
	벽난로용품	10 (11.6)	25 (25.3)	8 (7.9)	43 (15.0)
	각종 랙 rack	3 (3.4)	7 (7.0)	19 (18.8)	29 (10.1)
	바구니	4 (4.6)	7 (7.0)	2 (1.9)	13 (4.5)
	달력	4 (4.6)	14 (14.1)	1 (0.9)	19 (6.6)
	메모꽂이		3 (3.0)	2 (1.9)	5 (1.7)
	재떨이 담배세트	32 (37.2)	31 (31.3)	6 (5.9)	69 (24.1)
	각종 함	5 (5.8)	1 (1.0)	1 (0.9)	7 (2.4)
	소반		4 (4.0)	2 (1.9)	6 (2.0)
	등경·초롱	4 (4.6)	1 (1.0)	1 (0.9)	6 (2.0)
	목판	3 (3.4)			3 (1.0)
기타 ¹⁾	9 (10.4)	11 (11.1)	4 (3.9)	24 (8.3)	

9)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거실 중 1976~1984년에는 86공간 중 36공간(약 41.9%), 1985~1993년에는 99공간 중 37공간(약 37.4%), 1994~2002년에는 101공간 중 9공간(약 9%)에서 이와 같은 가구를 거실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10) 각 종류의 소품이 1개라도 적용된 공간의 수

11) 적용된 공간의 수 ÷ 연대별 사례수(표2-1 참조) × 100

여기에서 연대별 적용공간의 백분율을 나타낸 것은, 각 연대별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표2-1 참조), 공간의 수만 보아서는 그 적용경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11> 거실의 연대별 실내 소품 적용 공간수¹⁰⁾와 백분율¹¹⁾ <계속>

종 류	연대별 적용된 공간수 (연대별 백분율)			합계 (전체공간에 대한 백분율)	
	1975~1984	1985~1994	1995~2002		
화분 류	화분	46 (53.5)	69 (69.6)	58 (57.4)	173 (60.5)
	화기	24 (27.9)	38 (38.3)	40 (39.6)	102 (35.7)
예술품 류	액자	49 (57.0)	89 (89.9)	67 (66.3)	205 (71.6)
	조각	32 (37.2)	53 (53.5)	39 (39.6)	124 (43.4)
	도자기	35 (40.7)	50 (50.5)	18 (17.8)	103 (36.0)
	타피스트리	4 (4.6)	2 (2.0)		6 (2.0)
강한 소품 그 외 류	수석	9 (10.4)	16 (16.1)	6 (5.9)	31 (10.8)
	모형(인형)	12 (13.9)	14 (14.1)	13 (12.8)	39 (13.6)
	기념상패	11 (12.7)	14 (14.1)	5 (4.9)	30 (10.4)
	어항	1 (1.1)	3 (3.0)	1 (0.9)	5 (1.7)
	장식용 식기	4 (4.6)	1 (1.0)	3 (2.9)	8 (2.7)
	박제	3 (3.4)	5 (5.0)	2 (1.9)	10 (3.4)
	술병	11 (12.7)	5 (5.0)		16 (5.5)
	기타 ¹⁾	37 (43.0)	28 (28.2)	45 (44.5)	110 (38.4)

실용성이 강한 소품 중 린넨류를 보면 거실의 주된 가구인 소파와 테이블을 위한 소품들이었다. 이 중 쿠션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 다른 린넨류의 소품(테이블보, 의자덮개, 방석, 매트) 사용이 최근에 와서 현격히 줄어들어 비해 최근에도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소파위에 방석이 1985~1994년에 현저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소파라는 서양의 가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국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여겨진다. 가전제품과 조명기구류에서는 여가시간을 즐기는데 필요한 TV와 오디오세트의 사용이 최근에 울수록 많이 나타났으며, 안방·부부침실에 비해 스탠드의 사용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실용성이 강한 소품으로는 재떨이·담배세트가 가장 많았고 각종 랙, 달력, 휴지곽의 순이었는데, 재떨이, 담배세트는 1975~1994년에 많았고, 1995~2002년에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그 당시의 유행이지 않았나 생각해볼 수 있다.

장식성이 강한 실내 소품은 안방·부부침실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 액자와 화분은 상당히 많은 거실에 꾸준히 적용이 되어(60%이상)있었고, 화기, 조각, 도자기도 상당수 있었으며 타피스트리, 골동품, 어항, 장식용 식기, 박제, 술병들은 안방·부부침실과는 다르게 더 적용된 종류이다. 한편 한국전통 소품은 그 종류나 적용 횟수 모두 적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장식성이 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모두를 안방·부부침실과 비교하여 보면 소품 종류는 줄었으나 적용된 횟수는 증가하였다. 전체 종류가 감소한 것은 장식성이 강한 소품은 증가한데 비해 실용성이 강한 소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증가한 장식적 소품에 대해 살펴보면,

1976~1993년 전후에 유행하던 불박이 거실장이나 장식장 안에 진열 가능한 실내 소품의 종류(액자, 조각, 도자기, 기념상패, 모형, 장식용 식기 차탄세트, 술병, 수석 등)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 소품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고 그 정의에 따라 소품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류된 소품이 주거공간에서 어떠한 경향으로 적용되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 문헌 16권에 나타난 여러 학자들의 실내 소품에 대한 정의를 조사, 정리하여 실내 소품을 '실내디자인에서 마지막막으로 그 공간을 완성시키면서 실용적으로 사용되거나 장식적인, 혹은 둘 다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가구보다 작고 이동이 용이하여야 한다.'로 정의 내릴 수 있었다.

둘째, 정의내린 실내 소품의 4가지 개념 요소인 장식성, 실용성,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으로 소품을 분류한 결과 모든 실용적인 소품은 실용성 뿐 아니라 장식성까지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네 요소를 모두 겸비하고 있었고, 장식적인 소품은 장식성, 실용성,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에서 실용성은 없었다. 한편 한국 전통주거공간에서 가구들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실내 소품을 4가지 개념 요소에 대입하여 보았더니 가구보다 작은 크기, 이동의 용이성이 소품을 분류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셋째, 실내 소품의 특성 중 안방·부부침실에 적용된 실용성이 강한 소품은 린넨류에서 침대보, 쿠션, 베개, 방석, 보료, 가전제품·조명기구류에서는 스탠드, 전화기, 시계, TV, 그 외류에서는 휴지곽, 소반, 각종 함, 재떨이·담배세트, 병풍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식성이 강한 소품은 식물류에서 화분, 화기, 예술품류에서 액자, 도자기, 조각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용성이 강한 소품은 1976~2002년 내에 그 종류나 개수면에서 별 변동사항이 없이 꾸준히 적용되어 왔으나, 장식성이 강한 소품은 1994~2002년에 상당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실내 소품의 특성 중 거실에 적용된 실용성이 강한 소품은 린넨류에서 쿠션, 테이블보, 의자덮개 등 거실의 주된 가구인 소파와 테이블을 위한 소품들이었고 가전제품과 조명기구류에서는 TV, 시계, 전화기, 오디오세트, 스탠드, 그 외류에서는 재떨이·담배세트, 벽난로용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식성이 강한 소품은 화분, 화기, 액자, 조각, 도자기 외에 모형, 수석, 기념상패, 술병 등 안방·부부침실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거실에 유행하던 불박이 거실장이나 장식장 안의 진열을 위한 소품들의 사용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안방·부부침실 및 거실의 실내 소품 적용 경향을 알아본 결과, 첫째 실내 소품은 장식적인 이유는 물론 실용적인 이유로 사용되고 있어 실내 소품이 공간의 장식 을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실용적인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안방·부부침실 및 거실에 적용된 실내 소품의 종류와 개수가 1994~2002년에 대폭 감소함으로써 최근에 들어 실내에 많은 수의 소품을 놓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통적 소품들이 근래에 올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양식이 보다 서구화되는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적용된 소품들도 과거에는 실용성이 강한 소품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서는 장식성이 강한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접수 일 : 2004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7월 26일

【참 고 문 헌】

- 광상희(1996). 공간을 위한 도자 장식용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 권혁재(2000). 인테리어 제품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 김대년·최정신(2000). 실내디자인의 이해. 교문사.
- 김명애(1996). 디스플레이를 위한 도자 소가구 제작. 국민대학교.
- 김상권(2001). 인테리어디자인. 미진사.
- 김성호(1995). 인테리어 디자인의 공간과 요소. 신기술.
- 김중근(1994). 실내디자인총론. 기문당.
- 김지영(2001). 실내공간을 위한 도자 디자인 개발. 국민대학교 등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
- 박영순 외 7(1998), 우리 옛집이야기, 열화당,
- 박영순·오혜경(1993), 인테리어 디자인, 다섯수레,
- 박홍(1988), 주택의 인테리어. 기문당.
- 배만실(1978). 이조목공가구의 미. 보성문화사.
- 안옥희(1993). 실내디자인. 미진사.
- 오인욱(2002). 실내디자인학. 기문당.
- 월간 가구저널, 2000년 1월호.
- 윤복자(2000). Korean Furniture and Culture. 신광출판사.
- 이명원(1997). 인테리어 소품 직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이연숙(1998). 주택과 실내디자인. 연세대출판부.
- 이주석(2001). 실내공간을 위한 small ceramics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 장기인(1985). 한국건축사전. 보성문화사.
- 조성렬(1988). 室內建築:인테리어디자인의 실제. 한림출판사.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최상수(1988). 한국의 의식주와 민구의 연구. 성문각.
- 최성수(1994). 실내디자인론. 동방디자인.
- 한국실내디자인학회(1997). 실내디자인학론. 기문당.
- 한국의장기사협회(1994). 실내디자인총해. 서우문화사.
- 현대주택. 1976년 ~2002년.
- John F. Pile(1997). Interior Design 국제.
- Arnold Friedman 외 2, Interior Design(1984). A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Interiors(3rd Ed.). Elsevier.
- Don Hepler 외 2(1983). Interior Desing Fundamentals. Gregg Division & McGraw-Hill Book Company.
- Sarah Faulkner(1988). Planing a Home. Holt Rinehart & Winston.